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5면
"위기에 빠진 전북교육 살려낼 것"

전주매일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음 3월 7일) 제29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만개한 플럼코트 인공수분하는 연구원들 6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플럼코트'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를 교잡한 과일로 바람이 불지 않는 평균온도 13도 이상인 날에 인공수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섬지역 상수도 '콸콸'

전북도,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광역도부 1위 달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복선화' 예타 조사 통과로
도민들이 생활용수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전북도가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 확충과 도민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수도 분야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5년간 2,1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농어촌 지역과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지역에 상수관로 1,019km를 매설, 5,808가구에 상수도를 신규 공급한 결과, 90.5%의 면단위 보급실적으로 광역도부 1위를 달성했고, 매년 약 150km의 관로를 신규 매설해 나감으로써 면단위 보급률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선유도 등 6개 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명도와 말도까지 연결하게 되면 고군산군도 9개 섬에 진안 용담댐의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내 25개 유인도서에 마을상수도 등 수도시설 정비를 완료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630개소 약 3만4,000여명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 미공급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이어, '전주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이 작년 12월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도민들이 단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사업비 3,023억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완주 고산에서 군산 대야까지 관로 58km를 복선화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단수 걱정을 덜게 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 해소 및 유지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상수도 현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5,969억원을 투자, 도내 전 지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노후관로 세척, 자동수질측정장치, 세분화된 유량 감시시스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상수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전 시·군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사업지구 내 유수율을 85%까지 차근차근 높여 나간다면, 안정적인 물 공급과 더불어 누수량과 생산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지방재정강화·균형발전 요청"

송하진 도지사, 시도지사협회장 자격으로 윤 당선인과 전화 통화
새만금 등 현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도… 尹, 송 지사 요청에 화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오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강화방안, 더 나아가 전북 현안사업 등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정부의 모토를 '지방시대'로 설정한 것에 당선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재정분권을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반영해준 것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전라북도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등의 공약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전세계 170여개국 5만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방분권, 잼버리 지원 등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챙겨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송하진 도지사의 요청에 흔쾌히 화답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향후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찾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과 함께 전북도 지역현안 과제를 건의하는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7개 시·군 농촌협약 준비 '착착'

도, 군산·익산·정읍·고창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 추진

전북도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행기관인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4월 한달 간 농촌협약을 준비중인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공모 신청 전에 평가지표에 따른 체크포인트를 사전에 세밀히 점검하면서 시·군에서 준비중인 농촌협약 계획을 마지막으로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전북은 지금까지 임실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농촌협약에 선정됐다.

올해는 군산시를 포함한 7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이 농촌협약 공모 선정을 목표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농촌생활권 발전방안을 담은 '농촌공간전략계획'과 '365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 공모 절차를 거쳐 농촌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간의 농촌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6명이 참여, 7개 시·군을 순회해 진행하며, 각 지자체의 농촌협약 최종 계획(안)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컨설팅은 특히, 지난해 2회씩 진행된 자문내용의 반영 여부와 지역특화 비전 수립, 공간전략계획 및 365생활권활성화계획 적정성, 공간정비계획의 적합성, 주민참여 등 거버넌스체계 구성·운영 실적 등에 대해 필요한 내용들을 자문과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지형 도 농촌활력과장은 "전북도가 농촌협약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농촌협약 컨설팅이 주효했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농촌협약 공모가 더 치열해진 만큼, 지난 노하우를 담아 시·군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해 많은 시군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